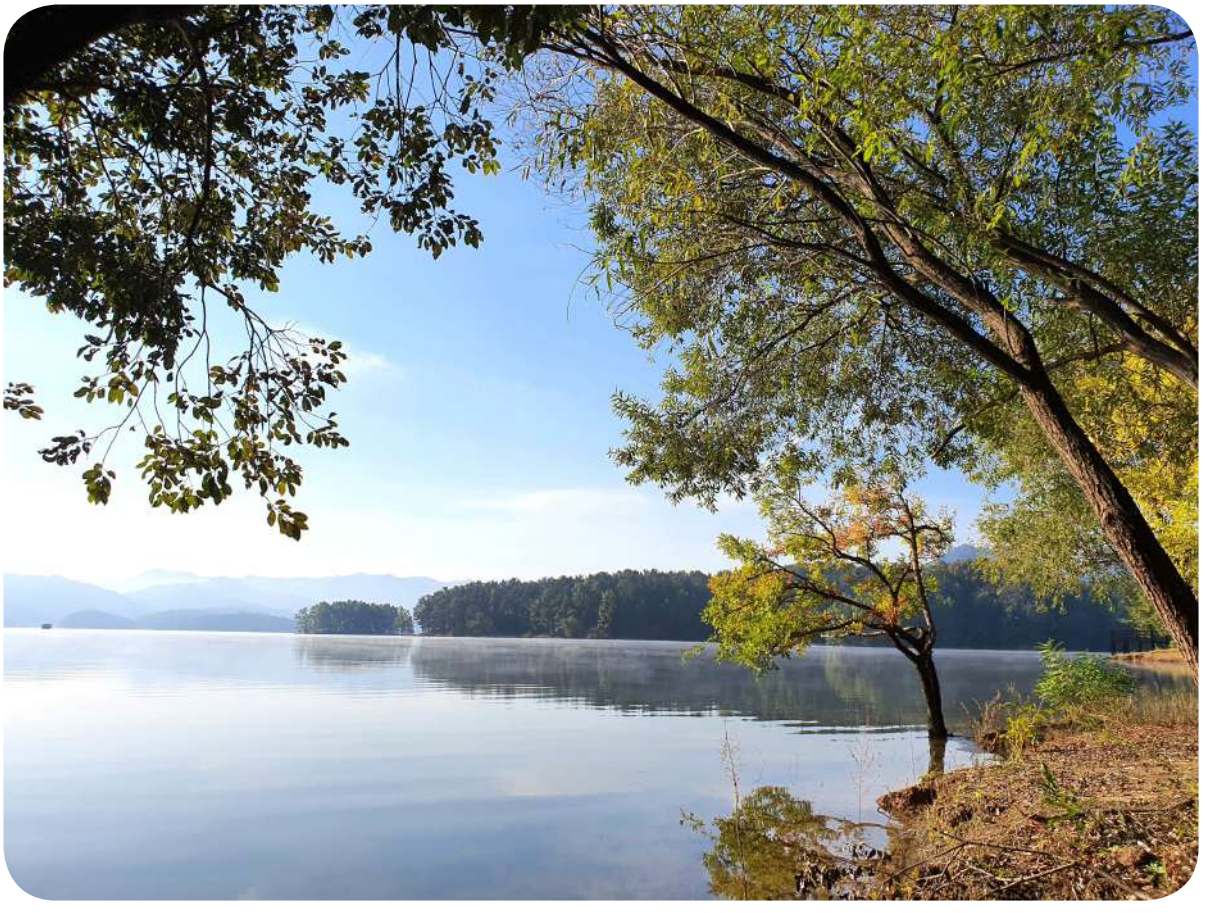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51

2026 봄



피라미

Zacco platypus, 잉어과

크기	길이는 약 12~17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푸른 갈색으로 등 쪽은 더 짙고 배는 은백색이다. 동공 위에 붉은 반점이 있다. 몸에는 10~13개의 청갈색 횡반이 있으며, 그 중간에 끝이 뾰족한 분홍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나 있다
주요 형질	몸은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주둥이는 짧고, 입은 크다. 입수염은 없고, 위턱이 아래턱보다 약간 길다.
서식지	물이 맑은 하천 중류의 여울 지역이나 저수지, 댐에 서식한다.
먹이습성	잡식성으로 부착 조류, 수서 곤충의 애벌레 등을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5~8월로 암수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얕은 여울의 잔자갈을 뒷지느러미로 파헤치며 알을 낳는다. 번식기에 수컷의 주둥이와 뺨에는 딱딱한 돌기가 돋아나고 뒷지느러미는 커진다. 또한 주둥이 주변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몸통에는 청록색과 붉은색을 더 많이 띤다.

CONTENTS

04 김정겸 이사장 인사글

05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94
맹승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07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5

14 대청호로컬푸드 이야기 - 1

18 정책 & 이슈

23 제25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26 네트워크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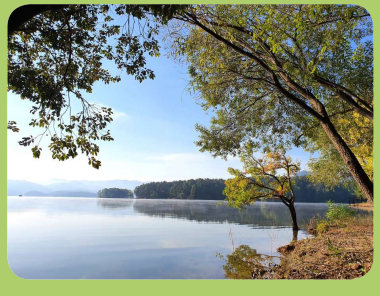
30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새해인사

31 대청호뉴스&뉴스

32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34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51



발행일 2026. 3. 15
발행인 김정겸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 집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며 대청호에도 다시 생명의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깨끗한 물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듯, 우리의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 발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에 취임하며...

글_**김정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새롭게 제11대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정겸입니다.

대청호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신임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청호는 단순한 호수를 넘어 대전·충청 450만 시민의 생명수이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품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청호 권역의 정화와 보전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토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주민 참여형 하천 감시 및 모니터링, 대청호 도농교류 지속 운영을 통한 '우리 흙 우리 물 살리기 운동' 확대, 녹조 저감 대응 활동 및 물환경 정책 제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발굴,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기금 확보와 조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450만 충청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단순한 상수원의 기능을 넘어 지역민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교육과 참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과제 발굴은 물론, 주민·지자체·정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 가능한 유역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일 때 대청호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청호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대청호 보전을 함께 이끌어온 정책연구의 동행

맹승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대청호의 가치와 보전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맹승진 교수는 오랜 시간 물과 환경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대청호 유역의 특성과 수질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연구자로서의 시선과 지역을 향한 책임감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차분히 살펴보았다.

농업용수 연구에서 대청호로 이어진 인연

"저는 원래 농업용수를 전공하면서 수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물의 양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죠. 그런데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청호 유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청호 주변 지역은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이나 비료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유입되면서 상수원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유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의 추천으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부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청호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며,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현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대청호,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이유

“대청호는 우리나라 중부권의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는 대청호의 기능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우선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청호가 만들어내는 경관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자 쉼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대청호는 단순한 ‘물 저장 공간’을 넘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인 자원이다. 그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대청호는 없어서는 안 될 기반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더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을 이어온 연결의 역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맹 교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해 '연결'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대청호를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제로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유역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활동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조직이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체의 활동이 단순한 환경정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는 것이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방향

한편 그는 현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지금은 운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희생이나 노력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수입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5주년을 맞이한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켜가는 대청호를 위한 당부

인터뷰 말미에 그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역 주민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점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대청호는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청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맹승진 교수의 이야기는 대청호 보전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삶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건강한 대청호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겨울의 끝에서 봄을 기다리는 대청호를 걷다

글_**여규용** 대청호해설사

아직은 바람 끝이 차다. 그러나 뜰에 가득하게 퍼지는 햇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봄이 숨겨 있음을 본다. 그런 성급한 햇살의 부름을 이기지 못하고 설레는 맘으로 찾아본 대청호 4구간을 바람을 안고 걸었다. 출발지점은 마산동 주차장인데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한산하다. 오랜만에 들러 본 마산동 주차장은 예전부터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다시 조성된 주차장이라 깔끔한 모습이었다. 바라보는 호숫물에는 잔잔한 아침 윤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물 위로 하얀 거위 무리가 헤엄을 친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위 무리들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음을 보고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거위 똥으로 온통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먹을 것을 달라고 헤엄쳐 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것이 습

거위떼들과 드러난 집터

관화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다 보면 이런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물그릇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걷기를 재촉한다. 명상정원 근처에 다다를 즈음 호숫가에 가득했던 우람한 소나무들이 몽땅 베어져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허가는 장식으로 받았는지 그랬다면 허가를 해준 관청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을 터인데 벌목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베어진 아름드리 소나무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한참을 서성이며 둘러 보았다. 자꾸만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내가 제일 자주 찾았던 명상정원길을 걸었다. 아직 호수를 건너온 바람은 차갑다. 얼굴은 시리고 손가락은 곱아서 카메라 만지는 시간이 길어진다. 버려진 폐선이 있던 곳을 지나며 일부러 호숫가로 내려가 보았다. 폐선은 보이지 않고 어느 어부가 처놓은 그물과 작은 배 한 척이 뭍으로 올려져 있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환경이 더 좋아졌기를 바라며 걷고 있는 대청호길이 더 정신없이 어수선해 짐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렇게 명상정원길을 걸어 도착한 호숫가에서 물빛을 본다. 품으로 달려오는 물빛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부산스럽게 품을 파고든다.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 되었다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둔 안내판이 여기저기 기우뚱 볼썽사납게 서있다. 사진이 빛이 바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오늘 목적지는 전망좋은 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인데 제법 긴 코스지만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어 좋다. 그렇게 걷다 보니 "메리골드"라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지적하고 문제점을 거론했던 기억이 있다. 더 이상 주변 환경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런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메리골드 앞 호수쪽 데크길 앞으로 나무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그곳에 데크길을 조성 할 때도 가능하면 나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살려 두었던

메리골드 앞 베어진 나무

베어진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 죽어가는 나무-명상정원

알아보기 힘든 안내판-명상정원

것인데 이상하게도 카페쪽 나무들만 잘라져 있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훼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한심하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이런 모습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운 생각이 든다. 내가 학교에서 숲생태 교육을 하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숲사랑과 자연환경 지킴이가 되자는 이야기가 허공에 대고 부르짖었던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마음을 쉬어가는 명상정원 그곳은 지금은 들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역사가 희생되어 만들어진 공원이다. 그런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데 있었던 사실조차 왜곡되어 전해 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명상정원길을 벗어나 전망 좋은 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그곳을 걷던 어느 시민이 하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 일행에게 아는 척하고픈 마음이라 이해를 했지만 저런 말 한마디가 가지고 올 오해가 걱정되었다.

”살인의 추억“을 촬영했던 우물(영화 촬영용 세트장)을 보고는 당당하게 아는척 하는 말이 이 우물이 ”천년의 우물“을 촬영했던 우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한마디로 또 하나의 엉터리 스토리가 만들어 진 것이다.

전망좋은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걷는다. 습지 지역을 지나면서 푸드덕 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후투티 한 마리가 날아 오른다. 참 오랜만이다. 예전에 살던 터전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득 보게 되다니 감격스러웠다. 깃털이 아름다운 새 후투티, 내가 대청호에서 처음 만나고 그 예쁜 모습과 매력에 흠뻑 빠진 아름다운 새, 놀람과 반가운 흥분이 가슴 가득 차 오른다. 전망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 여러갈래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데크길 공사 중이라 그사이 사람들이 다니느라 만들어 진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산 능선으로 난 여러 갈래길이 어수선하다. 오랜만에 전망 좋은 곳에서 조망을 즐기고 조개섬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보기도 하고 멀리 펼쳐진 호수를 품안에 가득 안고 설렘을 즐겨 보기도 했다.

어부의 나룻배

호수로 들어온 차량

멀리로 하얗게 변해 버렸던 가마우지 섬도 조금은 푸름을 되찾은 듯 눈에 들어오고

아득한 물 위에는 얕은 파도가 넘실대며 즐거운 노래를 한다. 마치 내가 찾아온 것을 반기는 듯하다.

호숫가를 걷는 발걸음은 힘든 줄 모른다. 그렇다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망가진 호수 주변의 모습에서 베어진 나무들의 잔해를 보며 행복함 보다는 착잡함이 더 컸다. 아쉬운 맘을 달래며 돌아 나오는 길에 깜짝 놀랄 현장을 보았다. 누군가 차를 호숫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엄연히 차를 주차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니 참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오던 길을 되돌아 내 차가 있는 곳으로 걷는다. 다양한 호수의 모습을 눈으로 본 터라 마음을 착잡하고 무거웠다. 대청호가 우리가 먹는 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이 대청호 물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른다면 당연히 어른들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토론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정기적으로 호수 주변의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에는 필히 참석하여 이수증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을 받은 식당과 카페에 대청호 환경지킴이 활동 인증서를 교부하고 자기 영업소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점수제 및 벌점제를 이용하여 일정 점수를 유지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다소 웃기는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물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봄이 오고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에 꽃들이 피어나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른 고민 없이 즐겁게 걷고 감상하고 싶다.

대청호 로컬푸드 의미와 과제

글_**김종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먹는 것은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이며 합당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삼시 세끼 내가 먹는 밥상을 생각해 보자. 누가 생산했는지 아는가? 살아있는 땅에서 햇볕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식재료인가? 유통과정과 가격은 적정한가? 최종적으로 건강에 이롭게 만들어진 음식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냥 먹는가? 매일 반복되는 흔한 밥상에 대해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하냐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 내 몸과 뇌를 활성화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꽤 중요하다. 밥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누구랑 사느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의 문제와 연관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16년간 사업을 유지해 온 대청호 로컬푸드 이야기와 바로 연결된다.

대청호로컬푸드의 의미

우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운동본부는 450만 대전·충남·충북 시민들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공기업,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다. 대청호가 댐 안에 담수하고 있는 물이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거기 기대 사는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건강한 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본부는 대청호로 흘러드는 여러 지류들, 마을의 도랑들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사업비를 대부분 사용한다. 그 중에는 지류로 흘러나가는 농업폐수가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농사하기가 있다. 옥천과 영동, 보은, 금산 지역의 농민들이 함께 실천한다. 대청호 상류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땅과 물을 살리고, 그 농산물을 하류지역 주민들과 직거래함으로써 식량지산지소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대청호로컬푸드의 이름으로. 운동본부는 이 사업을 2010년부터 본격화하였고 15년이 된 2025년까지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대청호둘레의 농업 생산자와 친환경 소비자를 연계한 대청호 생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말이다.

로컬푸드사업을 살펴보니 꽤 흥미롭다.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대청호로컬푸드 참여자들이 지불한 돈이 농민들의 가계로 들어가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소비증대로 이어진다는 것. 즉, 대청호 하류에서 상류로 돈이 돌아 대청호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이자 순환경

제다. 운동본부가 이 사업에 집행한 예산은 2009년 1.1천만 원.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옥천, 청원(청주), 대전네트워크 사업비의 20%를 도농교류와 대청호로컬푸드사업에 집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회원들이 참여했다. 농촌체험과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이해했고 대청호로컬푸드를 사랑하게 됐다. 운동본부는 생활공동체사업단의 형태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품앗이생협, 어린이도서관, K-water대청댐지사, 계룡문고, 대전컨벤션센터, 대전시청, 대전무역전시관, 카이스트, 대전관광공사(대청호오백리길) 등과 협력해 일일 농민장터를 열고 대청호농산물을 판매했다.

농촌체험활동 참여단체들은 한밭레츠, 대전환경연합, 대전네트워크, 어린이도서관협의회, 물사랑교육참여학교(초등), 평송지역아동센터, 대전경실련, 대전YMCA, 지역아동센터, 대전YWCA, 대전의제21(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고, 참여단체 회원중심의 농촌체험활동은 농산물 수확체험을 기본으로 농사교육, 자연환경교육, 마을문화교육 등 종합적 체험활동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일회성 사업 응대와 준비에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다. 결국 빈도가 점점 줄었고 대전과 청주네트워크만 명맥을 유지한다.

대청호로컬푸드 농민장터

대청호로컬푸드 직거래는 주1회의 농민장터와 대청호보따리 배송으로 이뤄진다. 직거래장터의 시작은 추석과 설 명절의 직거래장터 운영, 김장철 김장배추 직거래였다. 수요가 늘어나고 전담 조직 및 활동가가 생기면서 주1회의 상설 농민장터로 정착됐다. 10년 동안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마당에서 펼쳐진 농민장터는 2025년 가을 평송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겼다. 주1회 안정적 장터운영으로 주요 소비자들에게 대청호로컬푸드를 알려 왔다. 농민장터 연간 총 매출액은? 2025년 기준 5천만 원 수준이란다. 영동과 옥천, 대전지역 10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청호보따리는 연평균 700건에 약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장터 지기는 영동의 농부 유낙종님과 로컬푸드라온아띠 대표 이성숙님이다. 유낙종님은 영동지역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매주 수집·운반해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생산자들에게 정산하는 매니저역할을 한다. 영동지역 농민장터 참여농가는 10농가. 꾸준

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농가는 셋이라 한다. 이들 농가들은 1700평에서 3000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30여 가지 농산물을 각각 재배해 판매품목 구성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한다. 장터는 모름지기 살 게 다양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장터지기는 더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참여해 더 풍성한 장터가 되기를 바란다. 유낙종님 같은 지역별 농부매니저가 있어서 농가별 수집운반을 하고 장터운영도 하면 대청호농민장터가 더 왁자지껄해질 수도 있겠다. 그분들이 옥천, 보은, 금산, 무주 등지에서 로컬푸드생산자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대청호로컬푸드가 더 활성화할 수도 있겠다. 장터지기 유낙종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간과 지역주민 신뢰가 관건이었다. 당사자도 농민이니까 농사짓는 시간 외 농민장터를 위해 기여한 시간은 사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수집운반과 판매에 관한 농민들의 전적인 신뢰가 필요했다. 농민장터의 속성상 미판매 물품이 나오기 마련이고 가격 탄력성이 불가피한데 판매를 위탁한 농민이 매니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장터공동체가 유지되기는 어려우니까. 십년동안 운영해오면서 영동지역 농민들의 신뢰와 참여는 꽤 굳건해졌다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장터를 열기 위해 달려온 희생에 대해 물었더니 좋아서 하는 일이라 행복하다 하신다. 시골농부가 매주 도시민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소득을 올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사회 기부도 하니 뿌듯하다고도. 공통경비는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받아 처리한다. 장터 참여농민 확대에 대해 물었더니 어려운 문제라 한다. 농민장터는 대략 50~60여 가지 품목이 나온다. 규모도 작고 판매가 불충분하기도 해서 일반 농민들은 굳이 참여하려하지 않는다 한다. 대부분 귀농한 소농들만 참여하는 이유. 대청호유역의 소농과 귀농인들을 조직화하고 생산된 로컬농산물을 지역별로 모아 농민장터로 연결하는 일을 운동본부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했다. 농민장터를 통한 연 매출액은? 농가당 1천만 원 정도라며 자랑스러워하신다. 농사비용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형편없는 금액입니다만 했더니 농사가 그런 것이라며 환하게 웃는다.

대청호로컬푸드의 미래

대청호로컬푸드사업은 지역농민운동에 기초한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의 영역을 환경시민사회와 대전충남지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었다. 안전한 대청호 먹

을거리 네트워크 구축과 상하류 유역 주민들의 경제생활공동체를 지향점으로. 실제로 상류지역 생산자와 하류지역 소비자 간 얼굴 있는 농산물을 통해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대청호생활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 일부 생기기도 했다. 직거래장터와 보따리, 공동구매 등의 방식으로 계절적으로 다량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산물가격 유지에 기여하고, 상류지역 농가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청호유역 영농의 유기화와 저화학농법 전환으로 토양 건전화, 대청호유입 하천의 수질 보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도 평가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사회의 현실, 대농중심의 농산업 확산 등으로 소규모 친환경 생산자조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대청호로컬푸드사업을 전담했던 로컬푸드라온아띠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운영을 축소했다. 대청호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후위기와 농촌의 인구소멸위기, 로컬푸드시장의 자본화, 친환경농산물소비시장의 위축은 운동본부가 대청호로컬푸드체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2026년부터 주1회 직거래장터만 운영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청호로컬푸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대청호와 로컬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땅과 물은 연결돼 있고 먹는 것과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 로컬푸드 판매에 지방정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청양군은 소비자를 찾아 대전에 세 곳의 직영로컬매장을 냈다. 모두 대전시민들이 즐겨 찾는 매장이다. 부여군과 논산시도 로컬매장을 민간과 연계해 운영한다. 대청호유역의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운동본부 조직으로 묶여 있다. 대청호유역 지방정부와 기업이 로컬푸드체인에 참여할 이유와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와 기업의 ESG경영성과가 강조되고 관련 법제도 강화됐다. 대청호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을 유지하며 탄소중립농업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일은 대표적인 ESG경영사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정부, 소비자 시민을 대청호로컬푸드체인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역할을 부여하며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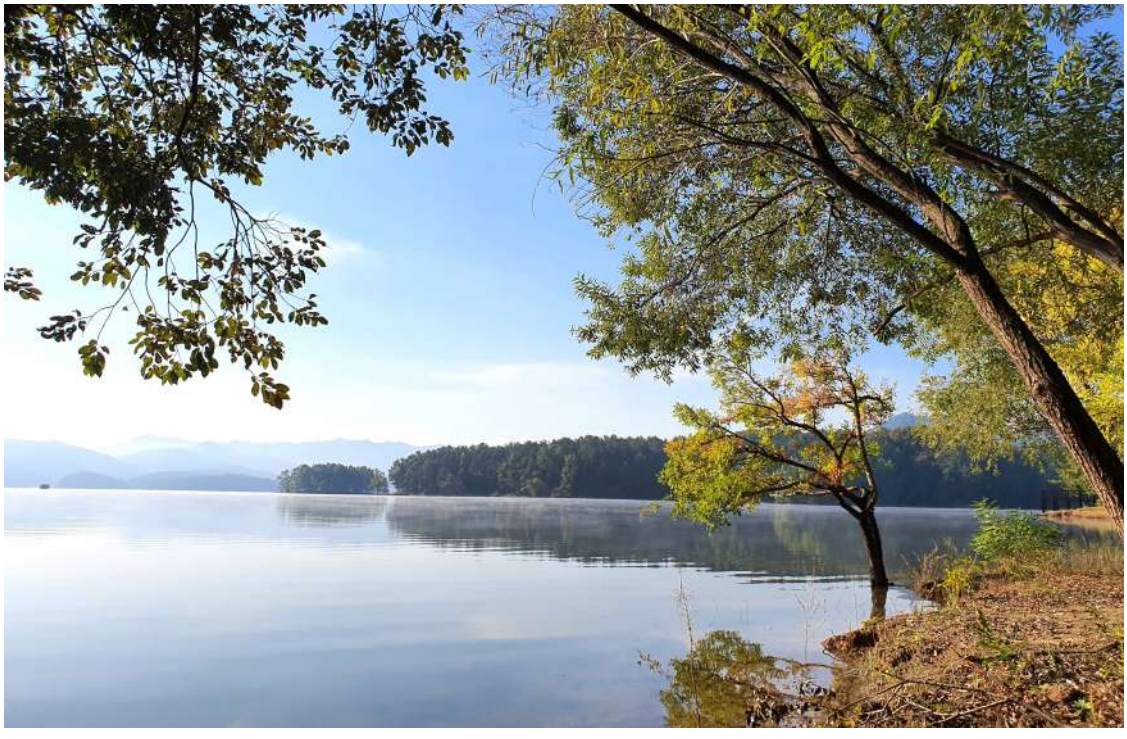
대청호 규제 완화, 그 사이에서

대청호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이어져 왔고, 그 역할 또한 분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역의 여건과 요구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수질 보전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청호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의 의견을 함께 담았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대전광역시 동구 김수현 기획홍보실장이, 반대 입장에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이 글을 보내주었다.

각기 다른 시선 속에 담긴 고민과 제안을 통해, 대청호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찬성의견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의견문

글_**김수현**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홍보실장

대전 동구 대청동을 비롯한 대청호 상류 지역은 40년간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 아래 놓여 있다. 음식점·숙박업·농산물 가공 등 제한으로 주민의 생계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생태 관광·농촌 체험·특산물 직거래조차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대전세종연구원 추정 기준 약 4천억 원의 토지 가치 손실이 누적되었으며, 인구 유출과 고령화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광 잠재력을 갖춘 지역임에도 이를 발전과 연계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규제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온 현실은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수질 관리 여건은 규제가 처음 설정되던 시기와 비교해 상당히 달라졌다. 2018년 하수관로 설치사업 준공으로 대청동·신탄진동 일대 오폐수 유입 차단 체계가 갖춰졌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정수 처리 기술 고도화도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행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일률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도화된 수질 관리 기술 수준에 맞게 오염 부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근거로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생태 관광, 농촌 체험, 특산물 직거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전제로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광 인프라 확충,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 숙박업 영업 허용 확대 등 주민 생계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수질 보전을 전제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다.

규제 개선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책 결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팔당호는 환경부·지자체·주민대

표·전문가가 참여하는'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대청호 역시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충청북도·관계 기초지자체·전문가·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질 보전과 규제 합리화, 지역 상생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기간 공익을 위해 생계와 재산권을 제약받아 온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첩 규제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지원 정책,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 구조, 이 세 가지가 함께 추진될 때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대청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대의견

대청호,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생명줄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450만 충청민의 생명수, 대청호가 위태롭다

글_**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26년 봄, 대청호반의 벚꽃이 필 시기가 되었습니다. 화사한 꽃망울이 터지는 계절이지만,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청호는 대전, 세종, 충남·북 주민 400만 명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대청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녹조는 이제 연례행사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해 대청호 전역에 조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은, 환자가 위독하여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를 떼어내고 산책을 시키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입니다.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온 원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청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청호 주변에는 '환경정비구역'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수백 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비웃듯 수천 평의 잔디 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해 전국에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평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이 아니라, 수익만을 쫓아 들어온 외지 자본입니다.

결국 지금 논의되는 규제 완화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대청호라는 천혜의 공공자원을 사유화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시설물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행정당국이 규제를 더 완화했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400만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을 근거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그동안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대청호의 총질소(T-N)와 총인(P) 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을 가중하며 식수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는 '적정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을 1%라도 높이는 것은 450만 명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청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수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청호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 개발로 보상받으라'는 무책임한 정치를 끝내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직접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개발이 아닌 국가적 보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해 도로를 닦거나 마을 회관을 짓는 간접적인 방식 대신, 규제로 인해 실제 손실을 보는 재산권에 대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소득을 보전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생을 위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와 시민들이 비용을 기꺼이 분담해야 합니다. 상류 지역 주민들이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농 교류와 생태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식수원 안전에 대한 전 시민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청권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물을 마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은 또다시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 대규모 개발계획을 쏟아낼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표를 위한 공약 하나에 400만 명의 생명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청호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자산입니다. 규제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창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대청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준비하는 대청호의 내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지난 2월 10일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제25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대청호 보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시간으로 이날 총회에는 대청호 상·하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의 다양한 유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나누었다.

먼저 2025년도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보고가 이루어졌다. 박성환 감사는 재정감사에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수질개선사업 기금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원마을과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천 정화활동, 환경교육, 소

유역 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수질개선 활동을 성실히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하천을 정화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과정은 대청호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으며, 온라인 소식지와 뉴스레터, 블로그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널리 알리며 공감대를 확산해 온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보았다.

이어 2025년도 사업 및 재정보고에서는 '다시 마을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청호 보전'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하천 정화활동과 환경교육, 외래종 제거 활동,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주민과 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유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대청호를 함께 지키는 유역공동체의 의미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한 해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도 함께 진행되어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신임 이사장은 학계와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행정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대청호 보전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이사장 체제 아래 운동본부가 더욱 단단한 유역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청호보전운동'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마을과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환경교육과 정책 연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보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청호 보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청호 지킴이상', '대청호보전 협력상', '공로패' 수상자들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대청호를 지켜온 분들로,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시상은 대청호 보전운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대청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유역공동체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며 대청호의 맑은 물과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을 통해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청호지킴이상 수상자

▲민숙영(무주 상길산 마을 대표) ▲임은호(금산 용화2리 마을 대표) ▲이안재(옥천네트워크 이사)
▲김미희(영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재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감사)
▲안재준(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최병안(청주 괴곡리 마을 대표)
▲서상옥(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처장)

대청호보전 협력상 수상자

▲박흥순(옥천 하천감시단) ▲조주영(K-water 금강유역본부 물환경부장)

공로패 수상자

▲신언석(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이사장) ▲배임식(영동네트워크 대표)
▲고선환(대청호유역하천센터 대표)

무주 네트워크

올해 무주네트워크에서는~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올해 무주네트워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청호를 지키는 일은 특정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도 무주네트워크는 주민들과 함께 하천과 마을을 가꾸는 활동을 차분하고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 수년간 지속해 온 정화 활동과 외래식물 제거, 농약 빈 병 수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조금씩 줄이며, 대청호의 맑은 물을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주민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환경교육과 친환경 제품 만들기 활동 역시 단순한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을 아끼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것이다.

앞으로도 무주네트워크는 회원마을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듣고 사업에 반영할 것이다.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와 소통을 통해 대청호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금산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기후대응에 실천하는 금산네트워크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2026년 금산네트워크는 기후위기와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실감하는 요즈음 수질 보호와 자연보호활동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된다.

아름다운 금강을 품고있는 금산네트워크는 12개 회원마을과 7개 회원단체가 협력하여 올해도 보람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연보호협회 금산지부에서 꾸준하게 진행하는 정화활동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친환경농업실천마을만들기 및 금산고등학교학생동아리"공존"의 생태환경탐사활동, 깨끗한마을만들기, 가시박제거활동등이 계획되어있다.

옥천 네트워크

대청호상류지역의 탄소중립 만들기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는 2026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업기조에 맞춰 “대청호상류지역의 탄소중립 마을만들기”를 진행한다. 안내천 중심으로 소유역거버넌스를 진행하여 안내천마을을 직접 관리하여 소유역단위의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 대청호수난구조대와 대청호수중정화활동을 통해 대청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려 한다. 옥천하감단들과 깨끗한 서화천 만들기 및 선진지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군북면 항곡리 마을 주민들과 탄소중립 마을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행사에 대청호 물사랑 및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을 진행 예정이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보전의식을 갖고자 한다.

2026년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며~ 파이팅!!!

영동 네트워크

내가 그린 영동을 기대하며~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봄을 품은 3월이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계획 만큼이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영동네트워크는 2026년도를 활기차게 열어보려 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극심한 더위와 매서운 한파를 겪으면서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는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은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회원마을과 회원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자 현수막게시와 나무식재를 계획하였고, 도농교류체험으로 도시와 농촌의 인적, 물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해 보려한다.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보은 네트워크

회원마을, 주민, 단체가 함께 하는 소유역 거버넌스!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에서는 회인천 소유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회원마을, 주민, 회원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정화활동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대청호 물사랑 홍보 등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참여 중심의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운동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보은네트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전 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의 2026년 그 활동을 소개합니다!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팀장

올해 대전네트워크는 대청댐 유역 도농교류와 대청호 유입하천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참여형 유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물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대청호 수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환경교육과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실천을 유도하고, 하천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쓸 것이다. 더불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대전네트워크는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을 통해 대청호의 맑은 물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청주 네트워크

대청호를 지키는 실천, 2026년 청주네트워크 활동 준비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청주네트워크는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청호 문의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주민 참여 기반의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마을과 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대청호 보전운동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다.

괴곡리와 두모1리에서는 쓰레기실명제를 지속 운영하고 확대하여 책임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룡리에서는 주민 환경리더 활동을 통해 마을 환경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현1리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저탄소 요리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실천을 확산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청주YMCA와 청주YWCA를 중심으로 대청호 탐방, 농촌체험, 환경정화 활동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민과 주민이 함께 대청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청주네트워크는 올해도 대청결운동과 운영회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에도 대청호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상·하류를 잇는 유역공동체, 천안아산네트워크

글_**강보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기획부장

이번 천안아산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은 병천천 수생태 모니터링 및 하천 감시활동, 물사랑 시민양성, 물사랑 실천환경교육 및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로 계획 및 진행된다. 천안아산네트워크의 담당자를 맡으면서 대청호의 상류와 하류는 하나의 유역공동체로써 상·하류 교류활동을 통한 수질개선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거래를 정례화하고, 상하류간 교류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상품화가 아닌 수질개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병천천 지역의 일반적 하천모니터링을 넘어 하천오염원 관리 및 주민실천 계도활동, 주민 참여 유도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도움되도록 하겠다.

임정미 사무처장

새해를 맞아 대청호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다져봅니다.
올해도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을 잇는 활동으로 더 넓은 공감과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육정임 총무부장

안녕하세요, 대청호의 맑은 봄기운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청호를 지키는 실천활동을 힘차게 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강보식 기획부장

2026년도 새해, 밀도가 없는 물은 경계가 없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요. 2026년 새해 금강의 물길처럼 모든 일들이 막힘 없이 시원하게 이뤄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이용욱 교육팀장

한해가 시작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대청호에 관심 가져주시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작은 교육과 한 번의 실천이 모여 대청호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배우고 알리며, 깨끗한 물 환경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청호 뉴스 & 뉴스

청남대 모노레일 3월 준공…공정률 95%

충북도는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에 조성 중인 모노레일이 오는 3월에 준공된다고 5일 밝혔다.

모노레일은 총사업비 54억3000만원을 들여 청남대 구 장비창고에서 제1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약 330m 구간에 40인승(20인승 2량) 규모로 설치된다.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다.

도는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환경훼손을 줄이고 저소음·저진동 시설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모노레일이 완공되면 고령자와 임신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용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2년 만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청남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남대는 2024년 8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라 휴게 음식점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청남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후략)

출처 : 국민일보 홍성헌 기자

'43년 만에 열린 뱃길' 대청호 친환경 도선 역사적 첫 출항

충북 옥천군은 23일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40t급 친환경 도선 출항식을 갖고, 안남면 동락정까지 대청호 21km 구간의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략)

앞서 1981년 6월 완공된 대청댐 담수 초기인 1979년에는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km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으나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다.

이후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선박 운항이 아예 불가능해졌으나 2022년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도선 운항을 허용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옥천군 관계자는 "40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대청호 뱃길은 지역의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 육종천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세계 물의 날 맞아 금강 합강리에서 시민 참여 하천정화 활동 펼쳐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토) 금강 합강리 일대에서 하천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한국수달네트워크와 WWF의 후원으로 물의 소중함과 하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천 정화활동은 금강 합강리 일대는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 동시에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장소이기도 해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인간의 이용 공간과 자연 생태 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물의 날'은 물 관리의 중요성과 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물 복지와 건강한 물순환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활동에 앞서 간단한 안전교육과 안내를 받은 뒤, 금강 합강리 일대에서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했다.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있어 참가자들은 수거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소수로 진행된 하천정화 활동이라 수거된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가 확인되었다. 하천 오염의 복합적인 지속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대규모 하천청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생활쓰레기들이 확인되며, 일회성 정화 활동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정임 의장은 "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생태와 시민의 삶이 만나는 공간"이라며 "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하천을 돌보고 가꾸는 경험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하천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북구환경모임 결성되다! 에너지 민주주의로!

3월 23일, 목상동에서 에너지의 역사와 체계 변화를 고민하는 첫 공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기운 속에 모인 참여자들과 함께 '에너지'라는 렌즈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에너지 시대에서 고에너지 시대로 급격히 변화해 온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에너지 과잉과 무분별한

과소비가 오늘날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현재 민간 기업이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는 에너지가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다시 협동조합이나 주민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하며, 이를 위해 공부를 넘어선 '운동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모임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열띤 논의 끝에 우리는 이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2강 내용을 미리 살피고, 대전시 에너지 정책의 가늠자가 될 제6차 및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훑어보며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에너지 시민으로서 첫발을 뗀 오늘, 목상동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지역 에너지 전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도심통과 반대 주민의견서 제출쳐

3월 23일 오후 2시경,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 62장을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전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그동안 CTX 도심 통과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은 충분한 주민 설명과 논의 없이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부담,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CTX 도심 통과는 환경, 교통, 상권, 안전, 재정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세계물의날, 설거지바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물 부족 상황을 알아보고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오일을 활용한 수분크림,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고 물 오염을 최소화하는 설거지바 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의 주제가 "Water and Gender", 대한민국 물의 날의 주제가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인 만큼 3월 22일 물의 날에 물이 부족한 곳이 없는지, 특히 여성 인권 보장이 어려운 나라에서 여성에게 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과 정책을 요구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잊지 마세요.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